

데살로니가교회에게 보낸

칭찬과 갱신의 미션

-복음으로 여는 데살로니가전서-

창세기 39:21-23, 데살로니가전서 4:16-18

정윤돈 목사님

* **창39:21-23**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사를 더하시니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므로 그 제반 사무를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었는지 살펴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 **살전4:16-18**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준공과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주와 천하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할 때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하게 살아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며 사탄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 오만가지 고통을 당하며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로 보내주시니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다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여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가 되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의 제자가 되어 세계 237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하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과 예배와 찬양을 통해 힘을 얻고 치유를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 교회와 세계복음화를 위해 생명 걸고 올인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하옵소서. 성도 중에 흑시 문제와 갈등과 기도제목이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 응답과 해답을 얻으며 도전해야 할 구체적인 미션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옵소서. 그리스도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셉은 어려움과 위기의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고 기다렸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가 조금할 때 실수한다는 것이다. 어려울 때 우리는 내 체질, 내 경험, 내 성격, 여론, 누구의 이야기로 조금하게 결단한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요셉처럼 질문할 수 있어야 한다. 말씀 속에서 지금 상황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 요셉은 누구를 탓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다.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게 중요했다. 여러분이 가난하던 병이 들었던 하나님이 함께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참된 성공자다. 요셉은 결국 쌀을 팔면서 237나라 5천 종족을 살리게 되었다. 아마 요셉은 '내가 비록 노예로 팔려왔지만 나는 복의 근원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고 조상에게 주셨던 언약을 나를 통해 성취하신다'는 믿음을 가졌을 것이다. 결국 요셉은 노예로도 인정을 받았고, 오해를 받아 감옥에 갇지만 그제 오�히려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길이었다. 총리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오�히려 어려움을 당했을 때가 기회다. 하나님의 절대목표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반면 종교는 내가 잘되는 게 목표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신다. 더 주님을 바라보고 더 주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더 축복하실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문제 앞에 속거나 조금해서는 안 된다. 어느 정도로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야 할까? 여러분이 문제를 만났을 때 복음과 언약이 떠올라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를 만났을 때 내 체질, 내 섭섭함이 먼저 떠오른다. 섭섭하다는 것도 사실 '나에게 맞춰주지 않아서' 섭섭한 것이다. 섭섭한 사람은 절대 리더자가 될 수 없다. 만약 요셉이 형들에게 팔렸을 때 섭섭해 했으면 시대적인 전도자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복음은 부족하고 잘못했

도 기다리고 이해하고, 당신이 피를 흘리시고 헌신하신 것이다. 복음은 가장 약한 자, 병든 자에게 친구가 되시고 그들을 대변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보통 약한 자를 무시하는데 그건 복음이 아니다. 그들을 살리는 주역이 되시기 바란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한다. 위함과 위기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조금하게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데살로니가교회는 칭찬을 많이 받았지만 문제도 많았고 데살로니가교회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온전하고 흠이 없게 갱신하도록 미션을 주셨다. 우리도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온전하고 흠이 없게 갱신해야겠다.

1.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받은 내용과 데살로니가교회의 문제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도 바울과 다른 성도들에게 많은 칭찬을 받았다. 데살로니가교회는 짧은 기간에 세워진 교회였지만 하나님에게 기쁨을 주는 모범적인 교회였다. ① 데살로니가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진 교회였다. 데살로니가 1장 3절에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다. 저는 10년 전부터 카카오톡으로 3오늘을 공유하자고 했었다. 여러분은 포럼할 때 강단메시지의 성취와 현장의 이야기, 세 가지 틀을 포럼해라. 매번 메시지 그대로 복사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은 성취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성취되어야 믿음의 역사가 있다. 또, WRC를 준비하면서 헌신하면 힘들 수 있는데, 그게 세계복음화를 위해 헌신하는 사랑의 수고라 아니라면 어렵다. 교회와 WRC에서 헌신하는 건 인턴십이다. 여러분의 본게임은 세상이다. 그런 램프들이 일어나고 있다. 세상은 램프들을 죽이려고 한다. 그 현장에서 복음과 그리스도를 누리고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은 주역이 될 것이다. 작은 일을 하더라도 사랑의 수고라고 생각하고 하셔야 한다. 종교개혁자들은 내 직업도 천명이라고 생각했다. 여러분의 본업에 충실해라. 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소망의 인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데살로니가교회는 대단한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 그리고 전 성도가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성도들이었다. 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많은 환란과 핍박도 이겨낸 교회였다. ②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교회는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로 인해 큰 확신을 가질만한 말씀성취의 증거가 있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능력과 성령의 역사와 큰 확신이 있기를 바란다. 언약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조금 언약잡고 헌신할 때 문을 열어주신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새롭게 도전해라. 내 현장을 땅대로, 최고로 만들어야 한다. ③ 데살로니가교회는 많은 환란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은혜롭게 받을 뿐 아니라 사도들과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 힘썼던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는 “또 너희는 많은 환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라고 말한다. 평강한 믿음의 사람이다. 성령의 기쁨이 있는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구원의 미소가 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어도 구원받은 사람의 미소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흑암을 쫓고 응답의 문들이 열린다. ④ 네 번째로 데살로니가교회의 믿음의 소문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와 각처로 퍼져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에서 8절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도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란다. 교회와 사회에서도 믿음의 소문이 퍼져야 한다. 칭찬을 듣는 믿음이다. 칭찬 받기 위해서 필 하지 않는 게 아니다. 자연스럽게 우리와야 한다. 오�히려 칭찬을 받으려 하는 건 영적으로 평강히 어린 것이다. 진정한 칭찬을 받는 램프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란다. 그게 현장의 빛과 소금이다. 현장에서 알고 보니 그리스도인, 참사랑교인이어야겠다. ⑤ 다섯 번째로, 데살로니가교회가 응답받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들이 사도들로부터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이다.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구약의 선지자들도 육신적, 성격적으

로 연약한 부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다. 저와 류복사님이 부족할 수 있지만 저는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 어떻게 우리 교회에서 실현할 수 있을지 고민한다. 저는 70나라를 두고 기도하다가 스리랑카 문이 열리고 미디어시대를 기도하며 미디어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바란다. 성령은 이렇게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삶에 역사한다고 말씀하고 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2) 다음으로 두 번째로는 데살로니가교회의 문제다. ① 첫째로, 당시 성도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고 죽거나 순교한 사람들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 ② 또 다른 성도들은 당대에 예수님께서 재림할 것을 조금하게 기다리며 임박한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다보니 옛날 다미션교회처럼 일을 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 우리는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도 오늘 가장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성도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서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사회와 나라와 국가를 살리는 게 우리가 할 일이다.

2. 데살로니가교회에게 권면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이 신앙에 열정적이다 보니 신앙이 외골수로 빠지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에게 바울은 정상적인 신앙,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봐도 정상적인 믿음을 가지라고 한다. 남들이 이상하다고 보면 이상한 게 맞다. 내가 나를 갱신해야 한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꾸지람을 듣고 훈계를 듣기 전에 강단에서 먼저 영혼과 마음과 생각을 찌르는 말씀을 통해 새롭게 되어 현장에 나가야 한다. 강단에서 훈계를 받아야 세상에서 칭찬을 받을 수 있다. 강단을 듣고 조금만 실천해 보라. 가정과 현장에서 칭찬을 받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교회를 향하여 지속적인 개혁과 갱신을 위한 도전미션을 주고 있다.

(1) 첫째로, 지속되는 환란과 핍박에서도 굳게 서라고 권면하고 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에 “너희가 굳게 선즉 우리가 살리라” 우리 교단에 여러 일들이 있는데, 이 일들을 통해서 흔들리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한다. 사람들은 남들이 잘할 때 배 아프고 못되면 행복해 한다. 우리는 아니다. 잘못은 조용히 훈계해야하고 꾸지람을 듣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나에게 갱신할 점이 있음을 알고 갱신하는 자세로 받아들여야 한다. 굳게 서시기를 바란다. 살리는 사람들은 흔들리고 갈등할 시간이 없다. 살리기 바쁘다.

(2)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더욱 많이 힘쓰라”고 권하고 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더욱 복음에 집중하고 세계복음화에 힘쓰시기 바란다. 여러분 직장생활에 힘쓰고 준비하시기 바란다.

(3)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8절을 보면 우리의 규모, 거룩한 삶을 살라고 권하고 있다. 우리가 음란함과 마약중독, 알콜중독, 도박중독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합내고 같이 가자고 할 수는 있지만 그게 복음이 있으니가 방탕하고 타락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다. 흠과 티가 없어야 한다. 중독에 빠졌더라도 그게 어느 날 필요가 없어져야 한다.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4) 또 자신의 직업과 일에 힘쓰라고 권하고 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는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5) 또한 말세에 깨어 정신을 차리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하고 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서 9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여기서 ‘깨어’라는 말은 술 취하지 말고 깨어있으라는 말이다. 빛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란다.

다.

(6) 다음으로 5장 12절에서 15절까지는 교회생활과 치유사역에서 필요한 말씀이다. 5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교독하겠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처음 교회에 나오거나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은 사람에게 이렇게 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중간사역자들은 실천해야하는 부분이다. 여러분은 교역자와 전도자를 귀하게 여기시고 게으른 자들을 권하며 붙들고 오래 참아야 한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을 대하든 선을 따라야겠다. 사역자들은 약한 사람들을 계속 돌보시기 바란다.

(7) 그리고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은 제자훈련의 마지막이다. 이게 쉽지 않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결혼한 것만 해도 결혼 안 한 것도 자녀가 있어도 없어도 전부 감사의 이유다. 뭐든지 감사하시기 바란다. 또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현장을 정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란다.

(8) 그리고 5장 19절에서 22절까지는 성령충만한 사역자가 되기 위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을 붙잡으면 그게 다 성취되는 예언의 말씀이다. 어떤 사람들은 좋은 게 많은데 나쁜 것만 취하는 사람들이 있다. 꼬부라진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은 끈게 피지시기를 바란다. 그게 치유다.

(9)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삶의 절대목표를 말씀하고 있다. 그것은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우리들의 영과 혼과 육이 흠이 없을 정도로 보존되는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는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메시지에서는 항상 영적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먼저 듣고 구원받고 거듭나라고 하지, 팬찮다고 하지 않는다. 성령은 혼과 영과 몸이 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한다고 말한다. 몸에 안 좋은 것과 마약을 하지 않는 것도 우리 몸이 성전이고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다. 저도 넘어지는데 넘어질 때 하나님께 질문하면 하나님이 답을 주신다. 넘어지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게 된다.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5장 23절에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라고 약속해 주셨다. 이 말씀이 성취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은 7망대, 7여정, 7이정표 중에서 7이정표 기도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다. 7이정표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안디옥교회, 에베소교회, 빌립보교회, 로마이다. 따라서 읽어주시기 바란다.

“① 내가 가는 곳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② 오늘 어디어디를 가는데, 감람산에서 주셨던 언약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③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하나님의 역사,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④ 안디옥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시간표, 내게 주옵소서. ⑤ 바울의 첫 번째 선교지, 모든 답을 찾아낸 아시아(에베소)에서 있었던 그 일을 내게 주옵소서. ⑥ (마게도냐 빌립보에서) 바울 탐이 얻어냈던 인생전환점, 찾아내게 하옵소서. ⑦ 로마 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끝으로 어떠한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조금하지 않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237나라 5천 종족의 현장에 전도망대, 선교망대, 치유망대를 세워가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깨달은 장막같이 쓸모없는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의 자녀로 붙드시고 사랑하심에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교회가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갱신하고 개혁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를 친히 새롭게 하시고 세계복음화에 합당한 개인과 교회와 한국 교회가 되도록 하옵소서. 그리스도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